

개인 신용평가 개선을 위한 ISO의 노력

최근의 금융위기를 감안할 때 필요한 것은 개인 신용평가에 대한 ISO 표준을 개발하자는 제안이다. 제안은 ISO 회원국인 오스트리아표준협회에서 제출하였다.

개인 신용평가는 수많은 논쟁 주제가 되었다. 그러나 은행 자본 요건에 관한 Basel II¹⁾ 국제규정은 이를 소매 신용 확보 과정의 일부가 되도록 의무화하였다.

소비자 권리 지지자들과 시장 관계자들은 미국 서브프라임 위기의 주범인 기존 개인 신용평가 기준을 비판해 왔다.

데이터를 토대로 하는 신용평가점수 자체나 관련 척도를 비롯하여, 신용평가 방법과 과정의 품질을 정의 및 명시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신속하고 저렴하며 객관적인 평가?

대부기관은 개인 신용평가를 이용하여 대출 자격과 이율, 신용한도를 결정한다. 은행이나 신용카드회사, 우편주문회사, 보험회사, 추심기관, 전기통신제공업자, 공익설비, 사용자, 정부기관 등에서 개인 신용평가를 이용하고 있다. 계량화가 가능한 신용평가를 신속하고, 저렴하며, 객관적으로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대부기관에 널리 사용되었다.

신용평가 기관의 표준화 방안에 대한 논쟁은 있었지만, 은행 규제기관은 Basel II 기본협약에 소매 신용 평가 규정을 포함시켰다(신용 평가 모델의 예측능력과 견고성에 주력하여). ISO 표준안에서는 자료와 소비자 권리 보호기관이 부과하는 이러한 규정의 제반 요소뿐 아니라 신용평가 이용자의 자발적인 책임을 참작해야 한다.

전체적으로 이 분야의 국제 표준화는 방법론의 투명성과 명확성, 비교성, 개방성 뿐 아니라 공정성이나 기타 윤리 기반 원칙을 제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ISO FOCUS 번역)

공정한 발전

표준의 목표는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균일한 고정 신용 평가 기준이나 통계 방법, 프로세스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급속히 변화하는 신용시장과 프로세스의 과제, 기술을 감안할 때 프로세스와 시스템, 기준, 가중치, 모델 및 측정 방법에는 얼마간 다양성이 있어야 한다.

이와 유사하게 표준안은 단일 모델을 “유일한” 모델로 등용시키는 것이 아니라 향후 학계와 실무자들의 연구개발을 통해 확인될 수 있는 혁신 솔루션에 개방되어야 한다.

1) Basel II 협약은 이차 바젤협정으로 바젤금융감독위원회가 발행하는 금융법규 관련 권고이다. Basel II는 은행이 대출 및 투자 기준을 통해 노출되는 위험에 적합한 자본 보유고를 유지할 수 있도록 엄격한 위험 및 자본 관리 요건을 정하고 있다

| 기술표준 2009.10

“국제 표준화는 방법론의 투명성과 명확성, 비교성, 개방성을 제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모델의 예측 능력과 정밀성, 견고성을 측정하여 표준화된 방식으로 각 개인 신용평가 방식의 품질을 평가할 수 있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평가의 목표나 평가 대상, 신용 상태, 예상 기간, 통계 분석의 기본 자료 기록, 포트폴리오 정의, 평가 가치와 등급, 방법론의 투명성, 문서화, 직원 훈련 등에 대해 최소 요건의 표준화를 개발할 수 있다.

이 경우 표준안은 신뢰할 수 없거나 사기성이 있거나 인가 또는 감사 시스템의 실패로 소매

신용 시장을 조작할 수 있는 이해당사자가 추진하는 방법론과 프로세스의 대두를 방지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시장은 이와 같이 단순한 의견 개진과 평가를 구분하기 위해 전문 신용평가 서비스의 자격 인정 기준에 대해 최소한의 수준이 필요하다. 자발적 책임 선언만으로는 부족하며 전문 신용평가 서비스의 경쟁을 촉진할 수 없다.

표준안은 개인 신용평가만 검토하며 통계 공식에 국한하지 않고 인간의 판단이 개입하는 광의의 신용평가를 뜻하는 등급은 다루지 않을 것이다. 표준화 작업은 2009년 말에 시작하여 정식 승인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필자소개

Holger Muehlbauer는 1996년부터 서비스 표준화를 전공하였으며 서비스 관련 ISO 및 CEN 프로젝트에 다수 참여하였다. ISO/TC 222, 개인 채무 설계, ISO/PC 230 심리 평가, ISO/PC 231, 브랜드 평가, ISO/PC 232 비공식 교육 및 훈련을 위한 학습 서비스, ISO/PC 235, 평가 서비스 간사를 역임했다. 법률 분야에서 경력을 쌓았다. 현재 업계와 당국, 연구기관으로 구성된 IT 보안협회인 TeleTrust Germany 전무이사로 재직중이다.

| 기술표준 2009.10